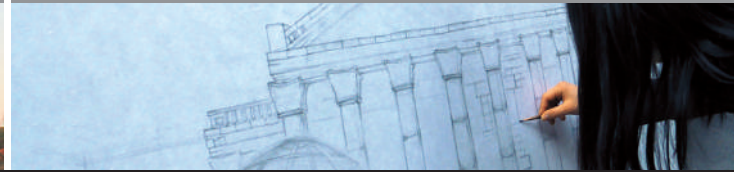


4» 국제캠 자치공간 부족



6»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분석



예비졸업사정 시행안내

대상자 : 2014학년도 후기(2015년 8월) 졸업 대상자
가. 금학기 포함 8학기 이상 재학생 나. 금학기 조기졸업 대상자
예비졸업사정 기간 : 2015. 3. 30.(월) ~ 2015. 4. 3.(금)
졸업대상자확인기간 : 2015. 4. 1.(수) ~ 2015. 4. 3.(금)
예비졸업사정 최종 결과확인 : 2015. 4. 13.(월)~



국제캠캠퍼스 총학 6년만에 총투표 47대 총학생회가 6년만에 총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자 수가 24~25일 이틀간 과반을 넘지 못해 25일 연장투표까지 실시한 결과 투표율 50.32%로 마감됐다. 투표결과와 최대 관심사였던 한대련 탈퇴여부는 '탈퇴'로 결론났다. 10년만의 일이다. (관련기사 3면)

48년 된 정경대학관, 시설·장비 모두 ‘낙후’ 교육공간 1개 당 재학생 수 159.3명 서울캠 최대

정경대학 공간·시설 점검

권윤지 기자 happice2@kh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권윤진(사회학 2014) 양은 학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경대학의 강의실을 대여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흡사 수강신청을 방불케 하는 강의실 대여 경쟁에서 밀려 모두 실패했다.

권 양은 “애초에 정경대학에는 빌릴 수 있는 강의실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야간에 수업을 하는 학과가 신설된 이후로 저녁 시간에 대여할 수 있는 강의실이 더욱 줄었다”고 말했다. 공간이 부족해 쪼열대는 상황 탓에, 정경대학생

<교육공간 1개당 재학생수> 단위 : 명

정경대학 159.3

음악대학 125.0

이과대학 104.5

경영대학 94.0

간호과학대학 79.6

문과대학 76.1

한외과학대학 73.8

약학대학 66.6

호텔관광대학 58.7

생활과학대학 40.3

※ 기준
재학생수 - 대학정보공시
2014. 2학기
교육공간 - 수강신청
전용 공간

들이 ‘카페를 가거나, 다른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리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나마 강의실 대여에 성공해도, 골칫거리는 남는다. 낙후된 기자재 탓이다.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 고은(정치외교학 2014) 양은 “컴퓨터를 이용해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가 느리고, 빔과 스크린 화면이 잘 맞지 않아 지장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강의실의 기본기능이 수업인데,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김 양만의 생각은 아니다.

정경대학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고시반들의 사정도 녹록치 않다. 특히 연로그시반은 연극동아리와 밴

드동아리 옆에 있어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연로그시반 박민형(연론정보학 2007) 실장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 고시반의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공채나 필기 시험 준비 기간에는 고시반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문제제기는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물론 모든 단과대학마다 ‘공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경대학의 문제는 그중에서도 심각하다.

▶5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국제학과 홍보영상 제작한
김강규 (국제학 2009)군



“국제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성의 가치 보여주고 싶었다”

이만고 기자 mingyo@khu.ac.kr

‘KyungHee International College(KIC)*’라는 문구와 함께 국제학과의 홍보영상이 시작된다. 아름다운 국제캠캠퍼스의 모습이 펼쳐지고, 이어서 국제학과 학생들이 축구, 농구, 야구, 밴드, 암벽등반, 럭비, 풍물놀이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모습이 나온다. 약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은 ‘Nothing is wrong’, ‘Everything is different’라는 멘트를 넣어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있는 국제학과의 특성을 표현하며 끝난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제작했을 법한 이 영상은 국제학과에 재학 중인 김강규(국제학 2009) 군이 연출부터 촬영, 편집까지 ‘직접’해 만든 것이다.

“이번 홍보영상은 혼자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학과 학생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 학생들에게 가장 고맙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직후 이 영상은 국제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김 군은 공을 다른 국제학과 학생들에게 돌렸다. “이번 홍보영상은 나 혼자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학과 학생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 학생들에게 가장 고맙다.”

연극영화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김 군은 이전부터 우리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왔다. 2012년에는 여수 엑스포에서 열린 국제학과의 대표적 행사 ‘모의유엔

대회’ 영상을 찍었다. 2013년에는 지구사회봉사단 GSC에 영상팀장으로서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이때의 영상을 10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많은 구성원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런 김 군의 경력을 높이 평가한 국제대학 박한규 학장은 김 군을 국제학과 홍보영상 제작자로 적극 추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콘티를 짜기 시작해 마침내 지난 17일 영상을 마무리 지었다.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그에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김 군은 오히려 “졸업 전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에도 국제학과 홍보영상 만들기를 써놓았었다”며 “최선을 다해 찍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마음은 영상에도 담겨 있다. 영상의 제목처럼 그가 생활한 국제학과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는 “틀린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를 뿐이다. 우리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었다”며 학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국제학과 안에는 철학동아리나 토론동아리 등 다양한 범주의 많은 활동들이 공존하고 있어, 짧은 영상만으로는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더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현재 국제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영상은 학과 차원에서 높은 주목을 받았다. 때문에 국제학과 측에서는 이 영상을 국제학과의 공식 홍보영상으로 행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영상 바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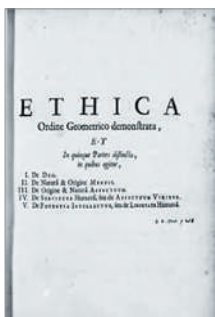
자유 향하는 기하학적 형이상학 스피노자의 《윤리학》

휴머니티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60

이경석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별로 두껍지 않은 한권의 책이 철학의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거다. 이거 하나면 철학을 뚝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책을 읽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웬지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 그 책을 기피할 것인가? 스피노자(1632~1677)의 『윤리학』이 바로 그런 책이다. 제목에 “기하학적 순서로 증명된”이라는 설명이 붙

어 있으며 실제로도 정의, 공리, 정리의 순서로 쓰여진 이상한 철학책.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학’이라고는 하지만 1부는



신관에 기초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은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형이상학, 2부는 인식론, 3부는 심리학으로 되어 있고, 4부 인간의 예속, 5부 인간의 자유에 이르러서야 윤리적 주제들을 다룬다.

이 책의 독특한 점은 다양한 주제들이 연관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제 1원인인 신에 대한 정의로부터 5부 인간의 자유와 지복에 이르기까지 기하학적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인간의 삶의 실재를 신에 대한 형이상학으로부터 인식론, 심리학 그리고 사회철학을 거쳐 도출해낸 것이다. 이러한 기획은 철학자의 꿈일까 아니면 과대망상일까?

23살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한 스피노자는 비록 파문의 조건인 자신의 이단적인 사상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유대교와는 사뭇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신관은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유대교적인 것에서 사물의 제1원인으로서의 신이라는 그리스적, 철학적인 것으로 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신관에 기초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은 신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면서도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핀테크 (FinTech)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 7면

